

세상의 모든 화이트와인... 프랑스 알자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전 세계에서 이토록 다양한 화이트와인을 선보일 수 있는 산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프랑스의 알자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실바너는 신선함이 가득하다. 피노블랑은 소박 단순하다. 게뷔르츠트라미너는 풍부함이 넘치지만 산미도 섬세하다. 알자스 대표주자 리슬링은 신선함과 풍부함을 고루 만족시켜준다. 뤼스카와 게뷔르츠트라미너는 잔에 따라자마자 화사한 향이 코를 사로잡는다. 화이트와인을 경험할 단 하나의 산지를 꼽으라면 알자스일 수밖에 없다.

알자스 와인생산자협회 피에리 프리츠(사진)는 지난 6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3 알자스 와인 마스터 클래스’에서 “토양의 다양성으로 보면 알자스는 세상 와인산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지질 유형이 다 있는 전시장과 같다”며 “최적의 기후와 토양, 여기에 식문



① 알자스 와인생산자협회 피에리 프리츠가 지난 6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3 알자스 와인 마스터 클래스’에서 알자스 지역의 다양한 토양과 와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② 목이 좁고 기다란 플루토병은 알자스 와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전용병이다. /소텍사 코리아



화까지 더해져 가장 뛰어난 화이트와인 산지가 됐다”고 말했다. 피에리는 알자스를 대표하는 양조학자이기도 하다.

알자스는 와인 산지로 따지면 규모가 정말 작은 곳이다. 만약 전세계 와인 생산량을 와인 한 병이라고 하면 알자스 와인은 몇 방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모든 상황과 입맛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함이다.

알자스 와인의 90%는 화이트다. 포도원은 길이가 120km인 반면 너비는 2~15km에 불과하다. 폭이 좁고 길게 뻗어진 알자스에서도 포도원은 산자락에 매달린 모양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반대류성 기후다. 9월 수확 시기에는 따뜻한 낮과 시원한 밤이 포도알을 보호해준다. 훌륭한 화이트 와인 양조에 이상적이다. 지금이 딱 수확이 시작될 시기다. 조짐이 좋다.

그는 “연중 내내 기후가 까다롭다가 수확을 앞두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2023년은 훌륭한 빈티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바뀐 소비 트렌드도 알자스 와인의 전망을 밝게 한다.

피에리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레

드 와인이 지배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화이트 와인의 수요가 늘었다”며 “알콜 도수 15~16도의 진한 레드 와인보다는 과실미나 향긋함을 가진 가벼운 화이트나 스파클링 와인을 찾는다”고 전했다.

와인이라고 어렵게 생각하거나 까다롭게 따질 필요가 없다. 원할 때면 편하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마실 수도 있어야 한다.

바이오다이내믹 와인에 대한 관심도 알자스 와인에 긍정적이다. 알자스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유기농 농법을 시작했다. 알자스 와인의 35%가 유기농으로 생산된다. 바이오다이내믹 인증을 받은 와이너리 수로 보면 독일 전체나 이탈리아 전체보다 알자스 한 지역에서가 더 많다.

그는 “마케팅 기회주의 차원의 유기농이 아니라 환경 보호는 물론 포도밭 일하는 사람과 소비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지속가능한 와인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3, 14, 15대째 이어진 와이너리가 가능했던 것도 그래서다.

이와 함께 알자스 와인은 무조건 지역 내에서 병입한다. 전체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의미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행위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

현대인들은 모두 ‘행위 중독’이라는 만성 질병을 앓고 있다. 과거에는 담배, 알코올,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마약 정도가 중독될 만한 대상이었다면, 오늘날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온라인 쇼핑 등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유혹의 빛이 도처에 깔려 있다.

행위 중독의 A to Z를 다룬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문서가 아닌 호러 논픽션 같다. 가장 무서운 점은 책에 나온 이야기가 소설이 아닌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다.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화면 너머에서 사용자의 자제력을 허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마치 마약상이 더 많은 마약을 팔기 위해 약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의 팔에 강제로 헤로인 주사바늘을 꽂는 것처럼 보인다.

책은 사람들이 행위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게임 디자이너들은 캐릭터가 특정한 박스 위로 이동할 때 반짝이는 빛을 표출하거나 아이템을 획득하면 신 나는 효과음을 내보내는 등의 자잘한 피드백으로 게이머들이 게임에 푹하게 만든다.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주르륵 훑는 아이처럼 게이머들도 자신의 행위가 어떤 효과를 낳는다고 느끼면 동기 부여가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조심자의 행운’을 맞본 게이머들도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사람들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 몰두하는 이유는 게임에 내장된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정교한 보상 사이클 때문이다. 게임사는 초반엔 유저에게 신속하게 보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애덤 알터 지음/홍지수 옮김/부키

상을 제공하고 이후엔 보상을 주는 시간을 늘려 사람들이 온종일 게임을 하게 만든다. 초보 게이머들이 얻는 ‘윈’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자잘한 미결 상태에서 오는 희열은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2007년 문을 연 온라인 쇼핑 사이트 길트는 깜짝 세일을 하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600만명의 회원을 끌어모은다. 예고 없이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끊임없이 화면을 새로고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세한 미결 상태를 겪는다. 이제 사람들은 사이트에 새로운 상품의 할인 판매를 알리는 ‘딩동’하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만사를 제쳐 두고 앱에 접속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책은 우리가 왜 행위 중독에 빠지는지,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420쪽.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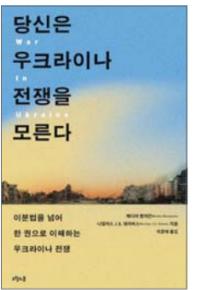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른다

메데아 벤자민, 니컬러스 J.S. 데이비스 지음/이준태 옮김/오월의봄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서방 진영은 러시아와 푸틴을 악마화하며 비난했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책은 당신이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푸틴은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며 젤렌스키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영웅일까. 나토와 미국의 도발로 러시아

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 공격했다는 것은 푸틴의 핑계에 불과할까. 전쟁 승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옳은 일일까.

저자는 전쟁을 선악의 구도로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균형 잡힌 관점에서 중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책. 252쪽. 1만8000원.



괴심한 철학 번역

코디징 지음/이소노미야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완독한 사람보다 읽다가 중간에 포기한 이들이 더 많은 악명높은 철학서다. 지식을 구하기 위해 철학서를 편 독자들은 자신의 문해력을 한탄하며 이마를 친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저자는 한국 사람들이 철학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철학 용어가 일본어 한자를 음역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

철학 용어의 대부분이 일본어 한자와 같다. 책은 우리나라 철학 용어의 상당수가 우리말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일본어에 중독된 퍼즐 놀이를 멈추라고 일갈한다. 저자는 일본식 번역이 서양 철학의 정수를 담아낼 만큼의 그릇이 되지 못함을 수치로 보여주며 독자들이 평범한 한국어로 순수이성비판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232쪽. 1만8000원.



평범한 규칙

정도영 지음/우물잇는집

사람들은 법이 공명정대하다고 여길 때 법을 지킨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 사회의 법을 공정하다고 느낄까. 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악마들로 인해 법의 가치가 의심받고 있다. 개개인의 옳고 그름이 서로 대립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공존을 위해 선택한

타협의 결과물이 법이라면, 그건 누굴 위한 타협인 것일까. 저자는 다수 대중의 행복이라는 법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회적 규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칙을 위한 규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소수가 아닌 다수의 편에서는 규칙을 통해 구시대 체제에서 탈피하고자 저자는 제안한다. 208쪽. 1만8000원.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그리스 ‘폭염산불’ 이후 하루 만에 750mm ‘물폭탄’
▲‘비행기 추락 생환기’ 담긴 헤밍웨이 편지... ‘3억’에 팔려 /사진 뉴스스

▲‘시가짜뉴스’ 우려에 구글 “선거 광고에 AI 사용 공개 의무화”
▲美합정, 대만 동쪽 타이베이시에서 14년만에 입항 “중견제”



▲英 제2의 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 1460억원 재정 적자 /사진 뉴스스
▲美 “우크라이나 열화우라늄탄 제공” 발표... 10억 달러 지원패키지